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문학적 재현

-郭松棻의 「月印」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장수용¹

1. 서론

20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제국-식민지 체제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편입되는 변동과정 속에서 개별 국가의 관민 충돌로 의해 정부 주도의 유혈진압 사건은 종종 민감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당국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기억에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역사적 국면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인 전환에 따라 정치적 민주화를 진전시키면서 과거에 금기시했던 역사적 기억이 문학적 재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군민 충돌로 의한 역사적 기억이 문학 작품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인물을 통해 살펴보는 데, 특징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관민 충돌 사건-1947년 대만에서 일어난 2.28 사건과, 1948년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이다. 대표적으로 郭松棻의 『奔跑的母親』 소설집과 현기영의 『순이삼촌』 소설집 속에서는 두 사건의 트라우마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공통적으로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지식인들과 민중들의 상처를 ‘공포’, ‘단절’, ‘속박’, ‘죽음’ 등의 정서로 작품속에 재현하였다. 이런 정서가 작품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의 트라우마와 회복 이론을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두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과 트라우마 경험을 살펴볼 것이다.

허먼에 의하면 ‘강렬한 두려움, 무력감, 통제 상실, 붕괴의 위협’은 심리적 트라우마의 공통분모로, 이는 공포, 단절, 속박 등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먼저 허먼은 공포의 단계를 세 범주로 다시 구분하는데, 위험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공포인 ‘과각성(hyperarousal)’, 트라우마적 사건의 고통이 생생히 남겨진 채 현재 출몰하는 ‘침투(intrusion)’, 그리고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거부 반응인 ‘억제(constriction)’²의 양상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단절’의 증후는 트라우마를 입은 개인이 통제의 상실과 붕괴의 위협으로 인해 가족, 우정, 사랑 등 공동체와의 애착을 파괴하고 트라우마 주체의 ‘자기’라는 심리적 구조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의미 체계 사이에 교란을 일으키며 세상에 대한 안정감과 자아 존중감을 파괴한다.³ 그리고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현되는 외상인 ‘속박’은 속박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증후로 피해자가 포로일 때, 도망칠 수 없을 때, 가해자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외상은 반복되면서 발현된다.⁴

¹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²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열린책들, 2012, 67~70 쪽.

³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위의 책, 2012, 97 쪽.

⁴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앞의 책, 2012, 134 쪽.

본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허먼의 트라우마 이론을 방법론으로 삼고,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과, 트라우마의 원인과 치유 과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작품 분석에 앞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것으로 두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난 당대 역사적 트라우마의 보편성과 특징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역사적 사건의 경과 및 문학적 재현

20 세기 전반기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 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중과 군경의 충돌로 발생한 비슷한 역사적 사건, 대만의 2.28 사건과 한국의 제주 4.3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2.1 대만 2.28 사건의 경우

대만의 ‘2.28 사건’은 1947년 2월 27일 사제 담배 단속 사건이라는 계기에 의해 비계획적이고 우발적인 항쟁으로 전개되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기대에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중국 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우와 충돌을 빚으며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느끼면서 ‘광복’의 기쁨과 기대는 차츰 실망과 분노로 변하며 중국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갔다. 그 중 정치적으로 대만에 도입된 새로운 행정제도⁵의 인사 진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대만 지식인에 대한 고위직 배척은 많은 대만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부패의 문제들은 대만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가령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모두 몰수해 버렸으며, 술, 담배, 장뇌(樟腦), 등의 전매 제도에 대한 통제, 공영사업 독점체제는 대만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결정적으로 대만인들은 그 폐해로 인해 실업자의 증가, 물품부족 등의 문제로 고통 받았다. 특히 자의적인 대만 화폐의 발행이 남발하여 2.28 사건이 발생하기 전 물가 상승으로 쌀값이 폭등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나서기도 했다. 또한 관군의 대만인에 대해 점령군과 같은 우월감을 갖고 위세와 행패로 인한, 군경민의 충돌이 2.28 사건 전까지 계속 발생했다.⁶

다음으로 ‘2.28 사건’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1947년 2월 27일 太平町 (현재의 延平北路) 天馬茶坊에서 사제 담배를 팔던 林江邁로 인해 陳文溪(20세)이 사망하면서 항쟁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2월 28일 장관공서 수비병에 의한 총격사건으로 인해 台北의 군중 행동은 더욱 격렬하게 확대되었다. 군중들은 대만방송국(현재의 台北 2.28 기념관)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불만과 주장을 방송했다. 이 계기로 사건이 전대만에 방송되면서 1947년 2월 28일 台北에서 시작된 항쟁은 3월 초가 되면서 대만 전역으로 확대된다. 台北 이외 臺中의 ‘27 부대’, 嘉義와 雲林 등 자발적인 민군(民軍)이 국민당 정부군과 교전 끝에 유혈진압되었고, 高雄에서는

⁵ 해방후 중국대륙과는 달리 대만성에 행정장관에게 행정, 입법, 사법, 인사, 군사 대권까지 갖는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정일원화(軍政一元化)의 특수한 권리를 부여했다.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1994: 6; 張炎憲외, 2006: 18).

⁶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1994: 18-27; 張炎憲 외, 2006: 19-35; 李筱峰, 1990: 28-35; 김영신, 1992: 318-320; 김정화, 2008: 211-213; 김민환, 2012: 43-62 등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군부대가 시민들의 공격을 받으며, 헌병대와 시 경찰국이 군중에 의해 포위되기까지 했었다. 또한 외성인 경영 상점들이 습격당하거나 외성인과 경찰이 구타당하는 등 유혈충돌이 계속되었다.⁷

상황이 심각해지자 행정장관 陳儀는 이 사건을 군중 폭동으로 몰아가면서 국민당 중앙정부에 전보를 보내 지원군을 파견하여 진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곧 대만 전 지역으로 계엄을 확대하고, 3 월 8 일부터 수정 (綏靖) . 청향 (淸鄉) . 선위 (宣慰) 의 공작을 시작했다.⁸ 3 월 9 일 중국에서 파견된 지원군 헌병 제 21 단 제 1 영 (營) 이 台北에 도착하자 언론사와 학교를 봉쇄하고 ‘반동간행물’들을 조사했다⁹. 또한 대만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처리위 지도자와 명망 인사들이 체포된 이후 많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청향작업을 수행하면서, ‘항쟁’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벌받거나 처형당했다. 특히 ‘의심분자’로 간주된 마을의 유력인사 혹은 지식인 등 대만사회의 엘리트층들은 대중 앞에서 총살되거나 실종되어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4 월 22 일 대만 행정장관공서가 폐지되고 새로운 대만성 주석 魏道明이 5 월 16 일에 취임했다. 그리하여 1947 년 2 월 28 일 시작된 대만 전역의 ‘항쟁’은 약 두 달 반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¹⁰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2.28 사건은 장기간 침묵과 은폐를 강요당하며 금기시 되어 문학계에서는 몇 몇 작품들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졌다. 伯子의 「台灣島上血和恨」 (1947.5) , 吳濁流의 「無花果」 (1967) 및 「台灣連翹」 (1974) 등의 작품에서 사건을 환상적, 상징적 수법으로 소설에 담아냈다. 郭松棻은 식민지 출생 지식인으로서 어린시절 직접 경험한 ‘2.28 사건’을 「月印」 (1993)에 담아냈다. 그는 작품에서 ‘사라진 아버지 또는 비참한 여성 등을 통해 당시 정부가 주도하는 강경진압 청향작업에 의해 처형되거나 실종된 대만인 지식인들과 사건으로 인한 여성의 트라우마를 형상화하였다.¹¹

2.2 제주 4.3 사건의 경우

한편, 해방 직후 제주도는 내부의 혼란과 외세적 억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해방의 기쁨과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해간다. 먼저 해방 초기 내부적인 혼란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일본송환, 외지 제주인의 귀환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변동, 미군정의 미곡정책의 실책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불만과 불신, 1946 년 8 월 1 일 제주도제(濟州島制) 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47 년 3.1 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지지를 받던 남로당 제주도당과 좌파들 두 집단은 첨예한 대립관계로 접어들게 된다.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1948 년 4 월 3 일 새벽 2 시 350 명의 무장대가 12 개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⁷ 이 부분은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1994 의 내용과 張炎憲 외, 2006;李筱峰, 1990;김영신, 1992; 김정화, 2008; 김민환, 2012 등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⁸ ‘수정’이란 무력진압을, ‘청향’이란 호구를 살살이 조사하여 의심분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선위’는 사람들의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의미한다.

⁹ 김민환, 2012: 44-56.

¹⁰ 이 부분은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1994 의 내용과 張炎憲 외, 2006;李筱峰, 1990;김영신, 1992; 김정화, 2008; 김민환, 2012 등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¹¹ 이 부분은 行政院研究二二八事件小組, 1994 의 내용과 張炎憲 외, 2006;李筱峰, 1990;김영신, 1992; 김정화, 2008; 김민환, 2012 등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무장봉기를 전개한다. 전개과정에서 결정적으로 5월 1일 우익청년에 의한 오라리 연미마을의 방화사건을 무장대로 전가되면서 미군정이 강경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¹² 또한, 5월 10일 총선거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불참함으로써, 이는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¹³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진압군은 중산간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해되며, 4.3 사건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¹⁴ 이로써 1947년 3월 1일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약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¹⁵ 이러한 배경 속에 한국 문학계에서도 침묵을 강요 받으며 ‘4.3 사건’은 이후 몇몇 작품에서만 다뤄졌다. 예를 들면 황순원의 「비바리」(1956), 전현규의 「4·3 아(兒)」(1964) 등이다.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은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이었다. 현기영은 4.3 사건의 트라우마로 단절된 순이삼촌의 고통, 공포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해 작품에 담아냈다.

郭松棻과 현기영은 당대 지식인으로서 또한 ‘2.28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직접 체험한 작가로서 당시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공통적으로 군민충돌로 트라우마를 겪은 인물을 그들의 작품에 재현했다. 당시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두 작가가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그들의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작품 속에 재현된 트라우마 양상

郭松棻과 현기영의 소설에 나타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트라우마 양상은 ① 위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공포의 경우와, ②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파괴로 인한 단절의 경우, ③ 억압적인 환경에서 강제로 의존해야만 하는 속박된 경우 등 그 양상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억압적인 체제로 인해 왜곡되는 주체와 폭력적인 체제로 인해 좌절된 병리적 주체를 郭松棻의 「月印」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작품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억압적인 체제로 인해 왜곡되는 주체- 「月印」

대만의 ‘2.28 사건’은 해방후 陳儀정부가 정치적 질서를 내세우면서 대만의 엘리트들을 요직에서 배제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던 불만이 대만 전역에서 폭발하게 되면서 전개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3월 8일부터 陳儀정부는 지원군을 앞세우며 수정(綏靖), 청향(淸鄉), 선위(宣慰)의 공작을 시작했는데, 이과정에서 대만 처리위 지도자, 명망 인사들이 체포되어 처벌받거나 처형당했다. 특히 ‘의심분자’로 간주된 지식인은 대중 앞에서 총살되거나 실종되어 시신을 찾지

¹²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 2003:198-200; 김민환, 2012: 43-63.

¹³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 2003:260-266; 김민환, 2012: 43-63.

¹⁴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 2003:338-341; 김민환, 2012: 43-63..

¹⁵ 제주 4.3 사건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 2003:341-362; 김민환, 2012: 43-63.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만 지식인들과 ‘의심분자’들에 대한 억압은 극심하였다.

「月印」에서 주인공인 文惠는 대만의 전형적인 여성으로, 신식 교육을 받았으나 정혼자 鐵敏결을 지키며 두 사람의 가정의 행복만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낙관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시대적인 사명감을 안고 조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대만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남편 鐵敏과 갈등을 겪으며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또한 두 사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침투자 蔡醫師와 楊大姐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관찰하며 당시 정치적 구조적인 모순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인 실천 과정 속에서 당시 시대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택임을 관찰하게 되며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된다.

1993년에 발표한 郭松棻의 「月印」의 전반부는 여주인공인 文惠의 낙관적인 시각으로 일제말기 참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찬 대만의 참상을 그려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는 해방후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해방후 조국으로 되돌아오면서 국민당 정부의 통치아래 발생한 2.28 사건 때 또 다시 대만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반면에 소설속에 남편 鐵敏은 투병으로 인해 전쟁을 피해가게 됐지만 228 사건 때 文惠의 모성과 강인한 보살핌과 극진한 간호로 인해 완쾌하게 된다. 스토리는 남자주인공이 전쟁이 끝난 후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낙관적인 여주인공은 피난시절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台北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생기가 넘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너나할 것없이 다투어 台北의 피해 상황이 어떠한지에 주목하고 있으나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정혼자와 그녀의 발걸음 아래의 치치폭폭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있었다. 그러나 2.28 사건이 일어나며 그녀는 다시 공포의 현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설이 지난 3월, 文惠는 라디오에서 처절한 목소리의 방송을 듣게 된다. “타이페이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소문에 의하면 시가지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뜻밖에도 또 전쟁이 났다. 두 달전, 갑자기 「戶口糝」만 살 수 있었다. 그때 소문이 난지 얼마 돼지 않아서 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大稻埕에 있는 어머니는 괜찮으신지 모르겠다. 한밤중에, 鐵敏은 또 열이 났다. 혼수상태로 잠꼬대를 하는데, 마치 병사훈련장에 있는 것 같았다.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林口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부대중에 대만의 지원병도 神風隊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온 가족이 똑같이 악몽을 꾸는데 한밤에 귀신이 나오는 얘기가 갑자기 늘어났었다. 밤에 大稻埕에서 총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라디오에서 처리위원회가 中山堂에서 설립되면서 큰소리로 외치며 이 사태를 처리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다고 방송했다. 얼마전까지도 文惠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전쟁이 끝난줄 알았다. 모든 것이 태평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전쟁이 또 다시 찾아온 것이다.¹⁶

위의 예문은 「月印」의 1장 마지막 부분이다. 郭松棻은 「月印」에서 혼란스럽고 불안에 젖은 2.28 사건 전야를 리얼하게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戶口米」, 228 사건 처리위원회의 설립, 大稻埕의 총소리 등 어휘를 통해 역사적 순간 ‘2.28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해방 후 전쟁이 끝나면서 文惠의 노력 끝에 이룬 결혼 생활은

¹⁶ 『奔跑的母親』, 앞의 책, 38 쪽.

2.28 사건으로 인해 긴장되고 질식할 것 같은 공포의 분위기 속으로 다시 몰아 넣는 것이다. 文惠의 기억 속에서 전투기의 폭격소리, 그리고 전쟁의 징병 등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참혹한 전쟁의 공포에 다시 휩싸이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그후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극진하게 남편을 병간호하며 蔡醫師의 치료로 의 건강이 점점 완쾌하게 된다. 남편은 병이 완쾌되면서 메뚜기와 같이 펄펄뛰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책임과 ‘漢民族’에 대한 선망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이는 진보적인 그녀의 국어교사이자 《台灣新文藝》의 편집자인 佐良春彥의 영향으로 받고부터이다. 그후 蔡醫師의 권유로 《第三者的命運》, 《人間萬歲》를 읽고, 蔡醫師와 威爾遜主義, 托爾斯泰主義 등의 자유주의 사상을 나누며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楊大姐와 그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꿈에 그리던 ‘漢民族’을 간접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文惠 그녀에게는 이 모든게 낯설고 두려울 뿐이다. 남편이 열띠게 논하는 중국은 단지 저 먼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楊大姐가 말하던 旗袍나 梅花는 그녀를 시골 촌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蔡醫師, 그리고 楊大姐가 함께 나누는 조국은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먼 꿈 속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다.

“음, 만약에 아무런 미련없이 의연한 인생을 마친 후 죽을 수 있다면, 젊을지라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¹⁷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외출이 잦아지며 楊大姐와 그의 친구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원했던 둘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과 너무 먼 것이었다.

요즘 鐵敏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래서 그녀는 집안에 오리를 키우며 외로움을 달래본다.¹⁸

그리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楊大姐의 존재는 文惠와 남편의 관계를 파괴하며 그녀에게 비정상적 공포증을 발현한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소외되고 文惠 자신을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다.

文惠는 생각지도 못한 楊大姐가 갑자기 혼자서 집을 찾아온 것이다.

중략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부인을 대하면서 文惠는 손발이 모두 묶인 것 같이 어쩔줄 몰라했다.¹⁹

평상시 모든 일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文惠는 楊大姐의 출현 후 강박적으로 楊大姐를 훑어보는 과민한 증후를 계속해 보이며,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집 앞에서나 蔡醫師 집에서 楊大姐의 외모, 의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¹⁷ 『奔跑的母親』, 위의 책, 42 쪽.

¹⁸ 『奔跑的母親』, 앞의 책, 87 쪽.

¹⁹ 『奔跑的母親』, 앞의 책, 80 쪽.

말투, 대화의 내용과 대상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楊大姉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에 시달린다.²⁰

“鐵敏을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

楊大姉는 현관문 앞에 우뚝서서 머리를 옆으로 돌리며 마치 장난치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文惠를 무척 곤란하게 만들었다.

새하얀 번개불 그리고 무수한 작은 불빛들이 文惠 눈 앞에서 스쳐갔다.

文惠는 鐵敏과 楊大姉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배웅하며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이내 슬픔이 文惠를 엄습해 왔다.²¹

특히 매력적인 楊大姉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슬픔과 불안에 빠지며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文惠는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집에 혼자 있을 때 술로 자신을 마비시키거나 우는 일이 잦아진다.

대낮에 혼자서 몰래 우는 일도 잦아졌다.²²

허먼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동안,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쉽게 공포로 마비되거나 고립된다²³라고 한다. 즉, 예고 없이 나타나는 楊大姉의 존재는 文惠에게 비정상적 공포증을 발현하며 文惠 자신을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다

달빛이 정원에서 서서히 번져가면서 들판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집도 천천히 외위싸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매일같이 외로운 집에 홀로 있는 그녀도 외위쌌다.

文惠는 언제부터인지 군영으로부터 들려오는 나팔소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비록 대낮일지라도 그 웅장한 멜로디가 넓은 하늘에 울려 퍼지면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처량할 수 없었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외로운 것이야.”

文惠는 또 한 번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²⁴

文惠의 ‘행복한 신혼집’은 사라지고 그 공간은 ‘고독한 집’으로 변화했는데 그것은 楊大姉의 침입으로 인한 것이다.

鐵敏이는 집에 없었다. 저녁을 지었지만 헛일이었다. 난로에 있는 불씨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난로 위의 밥통은 차가운 물기가 가득 찼다. 文惠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불에 그을린 눈물이 다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평평 실컷 울어버렸다.²⁵

위의 예문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렇게 ‘신혼집’은 文惠에게 그들 세계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고통이 각인된 이질적인 낯선 공간으로 변화한다. 신혼초기의 가장 안전하고

²⁰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앞의 책, 73 쪽.

²¹ 『奔跑의母親』, 앞의 책, 82 쪽.

²² 『奔跑의母親』, 앞의 책, 87 쪽.

²³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앞의 책, 109 쪽.

²⁴ 『奔跑의母親』, 앞의 책, 91 쪽.

²⁵ 『奔跑의母親』, 앞의 책, 87 쪽.

익숙한 공간이 낯선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는 충격적 사건으로 文惠의 머릿속에 각인되며 ‘집의 파괴’로 인해 초래되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文惠는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던 남편이 그녀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남편은 자신이 간직하는 비밀스런 책상자에 대한 물음에 묵무 대답이다. 다만 침묵만을 강요한다. 文惠는 그런 낯설은 남편을 대면하면서도 불편한 감정 표현도 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한다.

鐵敏에게 책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를 열쇠로 채우고 그의 책상 밑에 놓아 두었다.
鐵敏는 文惠에게 특별히 당부하며 그 책상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녀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그 책상자는 유난히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²⁶

文惠는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던 鐵敏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된다. 그렇게 文惠는 그 어떤 힘도 사라져 버리고, 완전하게 수동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게 된다. 文惠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후 굴복 상태에 놓이게 된다.²⁷ 결정적으로 그녀는 蔡醫師를 통해 남편이 자신만이 아닌 蔡醫師와 楊大姐, 그리고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조국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날 蔡醫師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이제 鐵敏의 건강을 당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습니다.” 의사는 농담속에 진지한 어투로 나에게 말했다. “음, 지금부터 鐵敏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²⁸

그런 蔡醫師가 한말은 모두 명심하였다. 그녀는 의사의 말에 남편이 더 이상 그녀와 둘만의 결혼 생활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닌 그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그와 남편 사이에 침투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한 미움은 극단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 그들로부터 남편을 되찾기 위해 파출소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불량서적’을 고발한다.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가게 된다.

그녀는 鐵敏이가 떠나면서 그 서점을 지키라는 뜻을 따르지 않았다.
文惠는 빗속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렇게 계속해서 파출소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마침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털어놓은 듯이 순식간에 안정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평상시와 똑같이 조용히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밤이 되자 그녀는 이불장을 밀고 이불을 한겹한겹식 안고 또 이불장으로 넣어 버렸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일을 해야 했던 것이다. 아무런 불평도 생각도 없이 다만 매일같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사이에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파출소에서 사람이 와서 鐵敏이를 데려 갔다. 그것은 아침잠에서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을 때였었다.²⁹

그리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며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 놓은듯 안정감을 되찾게 된다. 여기서 고발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그녀가 남편을 되찾기 위한 엉뚱한 발상이며, 둘째는 당시 정치적 구조 속에서 ‘불량서적-

²⁶ 『奔跑의母親』, 앞의 책, 88 쪽.

²⁷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앞의 책, 134~135 쪽.

²⁸ 『奔跑의母親』, 앞의 책, 98 쪽.

²⁹ 『奔跑의母親』, 앞의 책, 98~99 쪽.

禁書’를 소지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억압의 대상인데, 鐵敏과 蔡醫師, 楊大姐의 총살은 그런 결코 실현되지 못하고 패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상을 뜻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28 사건’ 당시 ‘청향’작업을 수행하면서, ‘항쟁’에 관여한 사람들이 체포된 후 공개적으로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특히 ‘반동간행물’을 소지하거나, ‘의심분자’로 간주되는 이는 총살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당시 현실 속에서 대만 지식인으로 대변되는 鐵敏과 蔡醫師, 중국의 楊大姐 등의 극진적인 정치인사들은 당시 사회에서 어긋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잡혀간지 이 주일이 채 안돼서 鐵敏이는 馬場町에서 총살당했다.
파출소에서 사람이 찾아 왔는데, 시신을 당일내로 찾아가라는 명령이다.
그러지 않으면 시체를 몰수해 병원에 보내 해부용으로 쓰겠다고 통보하였다.³⁰

그러나 여기서 文惠 그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단지 불량서적 한 상자를 소지했을 뿐인데 남편은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것이다. 이는 상상도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그들이 왜 鐵敏을 총살했는지 이해가 안 갔다. 그녀는 단지 파출소에 가서 남편이 책 한 상자를 감추고 있다고 고발했을 뿐인데.³¹

이는 진보적인 그녀의 국어교사인 佐良春彦의 경우와 대비해 볼 때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스승이 진보적인 발언으로 당시 정부를 비판했을 때 단지 해직을 당하며 본국으로 송환되는 반면 남편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말미에서 그녀는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악몽을 꾸게 된다. 2.28 사건의 공포가 지속적으로 발현하며 환청, 환각을 경험한다.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한다. 文惠는 鐵敏의 사랑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았지만 평생을 죄의식을 안고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남편의 영혼을 품고 슬픔과 고통 속에 현재와 단절된 채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3.2 폭력적 체제로 인해 좌절된 병리적 주체- 「순이삼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郭松棻의 「月印」(1993)에서는 ‘2.28 사건’ 전후의 지식인으로서 당면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이 개인적인 소망과 충돌하며 그로 인한 갈등으로 경험하는 文惠의 트라우마를 형상화하였다면, 이장에서 살펴볼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집단 학살의 희생자인 도피자의 가족들 순이 삼촌이 학살의 트라우마로 인해 30 간 지속적으로 공포, 단절, 억제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4.3 사건은 당시 미군정과 제주도 무장대를 두 쪽으로 갈라 놓으며 대립하게 되었다. 뒤이은 5.10 선거에 유일하게 불참하며 제주도는 정부주도의 강경진압의 대상이 되었다. 11 월 중순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대대적인 소각작전이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해안선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을 집단으로

³⁰ 『奔跑的母親』, 앞의 책, 102 쪽.

³¹ 『奔跑的母親』, 앞의 책, 102-103 쪽.

살해되며 집이 불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피자들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참혹하였다.

「순이삼촌」에서 주인공인 ‘나’는 30년전 당시 일곱살로 어린시절부터 따라다니던 순이 삼촌이 도피자 가족으로 몰리며 겪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를 폐병으로 잃은 자신만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학살 현장을 목격하며 가해자인 군인, 순경, 그리고 피해자인 도피자, 그의 가족간의 갈등을 관찰하게 되며 당시 모순된 현실을 경험한다.

1978년에 발표된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주인공인 ‘나’가 조부모의 제사를 맞아 고향 제주도를 8년만에 방문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된다. ‘나’는 30년전 군 소개작전에 소각된 잿더미 모습의 죽은마을이었던 고향, 깊은 우울증과 찌든 가난밖에 남겨준 것이 없는 제주도 서촌에 도착하며 순이 삼촌의 자살로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괴로운 기억을 대면하게 된다. 순이 삼촌은 남편이 도피자로 몰리며 도피자 가족으로 낙인 찍힌다. 그래서 종종 지사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된다.

도피자 가족들은 함덕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취조를 받고 닷새 만에 풀려나서 왔는데 순이삼촌도 그중에 끼여 있었다. 그 닷새 동안 할머니 심부름으로 길수형과 내가 번갈아가며 차좁쌀 주먹밥을 매일 한덩어리씩 차입해주었다. 마지막날엔 내가 주먹밥을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풀려나오는 순이삼촌을 만났는데 그 물골은 차마 끔찍한 것이었다. 비녀가 빠져나가 쪽이 풀리고 진흙으로 뒤발한 검정 몸뚱이에다 발은 맨발이었는데, 길가 돌담을 짚고 간신히 발짝을 떼며 허위허위 걸어오고 있었다.³²

위의 예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순이 삼촌은 도피자 가족으로 몰리면서 지사로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한다. 순이 삼촌이 풀렸을 때의 모습은 실로 끔찍하기 그지 없었다. 또한 주인공은 어느날 마당에서 도리깨질하던 순이 삼촌이 남편의 행방을 안 댄다고 빼앗긴 도리깨로 머리가 깨어지도록 얻어맞는 광경을 직접 보게 된다. 특히 4.3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군인이 순이삼촌에게 가했던 가장 두드러진 피해는 성폭력이었다.

그들은 또 여맹(女盟)이 뒹하하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촌처녀들을 붙잡아다가 공연히 여맹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발가벗겨놓고 눈요기를 일삼았다. 순이삼촌도 그런식으로 당했다. 지사에 붙들어다놓고 남편의 행방을 대라는 다투는 끝에 옷을 벗겼다는 것이었다. 어이없게도 그건 간밤에 남편이 왔다 갔는 지 알아본다는 핑계였는데, 남편이 왔다 갔으면 분명 그것을 했을 것이고, 아직 거기엔 분명 그 흔적이 남아 있을 테니 들여다보자는 것이었다.³³

순이 삼촌은 이러한 불안으로 인한 공포로 파출소, 군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파출소의 존재는 순이 삼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적 대상이다. 당시 부락민들에 대한 군경의 오해는 막무가내였다. 밤에는 부락 출신 공비들이 나타나 입산하지 않는 자는 반동이라고 대창으로 찢러죽이고, 낮에는 함덕리의 순경들이 스리쿼터를 타고 와 도피자 검속을 하니, 결국 마을 남정들은 낮이나 밤이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순경들이 도피자라고 찾던 폐병쟁이 중철이형은 공비가 습격해온 밤에 퀘 뒤에 숨어 있다가 기침을 몹시 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대창에 찢러죽었고
히간 명석 세워둔 틈에 숨어 있다가 역시 공비의 대창 맞고 죽은 완식이

³²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89 쪽.

³³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79 쪽.

아버지도 순경들이 찾던 도피자였다. 우리 종조부님도 사건 석 달 전에
부락 출신 공비의 대창에 찢려 돌아가셨다.

주인공은 그 당시 한밤중 “모두 잠깨라. 우리가 왔다!” 라는 공비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겁먹은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오싹해졌다. 이렇게 안팎으로 혹독하게
부대끼 마을 남정들은 도피의 수단으로 주인공 아버지처럼 통통배를 타고 일본으로
밀항해버린 사람도 있고 육지 전라도 땅으로 피신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사내아이들을 다른 마을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정네들은
마을에 그대로 눌러 있었는데, 폭도와 군경에 쫓겨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한라산
아래의 목장으로 올라가 마른 냇가의 굴속에 피난했다. 이리하여 군경측에서는 입산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선달 열여드레의 끔찍한 소각작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 사건은 마을 남정들이 그 냇가 동굴에서 혈거생활을 시작한 지 아흐레
만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순이삼촌은 우리 할머니에게 맡겨
두었던 오누이 자식을 데리러 내려와 있다가 그만 화를 당하고 만 것이었다.³⁴

순이 삼촌은 지서의 모진 고문을 피해 산으로 피신했었는데 하필 그날 두 아이를
데리러 내려왔다가 화를 당한 것이다. 그 사건은 당시 일곱살 나이던 주인공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혼자서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는 학살 현장
일주도변 옴팡밭의 산더미 시체를 목격하며 충격으로 눈물을 줄얼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만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날의 학살은 낮에 일어났었다. 당시 마을에는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뿐이었다.
소탕된 것은 노인과 아녀자들이었다. 그들은 시국 강연회로 알고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된다. 권총을 찬 장교를 위시로 순경, 함덕지서 순경 두 명과 창 끝이 검게 그슬린
대창을 든 대동청년단 청년이 뻗뻗한 자세로 서 있고 그 뒤로 스무 명쯤 되어 보이는
무장군인들이 이열로 늘어서 있었다. 군인가족들, 순경가족들, 공무원가족들,
대동청년단과 국민회 간부 가족들은 차례로 나와 따로 앉혀져 학살에서 제외되었다.
기타 마을 주민들은 긴 장대로 두 쪽으로 오십 명쯤을 딱 떼어내어 돼지를 모는 것
같이 교문 밖으로 내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중낮부터 저물녘까지 계속 진행되었다.
돼지몰든 사람들을 몰고 교문 밖에 맞바로 잇닿은 일주도로에 내몰리며 사격 총소리
콩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형도, 우익인사 가족들도 뉘놓고 영영 울고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죽은
소울음소리, 말울음소리도 처절했다. 시체들을 사건 후 석달이나 방치되었다.
까마귀떼나 개들의 밥이 되었다. 또래 아이들은 일주도로변 옴팡벌에서 주운 탄피로
화약총 만들기로 놀았다.³⁵

그 시간이면 이집 저집에서 그 청승맞은 곡성이 터지고 거기에 맞춰 개 짖는
소리가 밤하늘로 치솟아르곤 했다. 한낱한시에 이집 저집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였다. 제사는 고모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되곤 했다.³⁶

순이 삼촌은 30년이 흐른 뒤에도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과거 사건을 반복해서
체험하게 되는데, 깨어 있을 때에는 플래시백의 형태로 잠잘 때에는 악몽의 형태로

³⁴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77 쪽.

³⁵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63-66 쪽.

³⁶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60 쪽.

의식에 침투하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안전한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위험을 느끼게 된다.³⁷ 매년 삼월 여드렛날의 제삿날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제삿날 외에, 순이삼촌은 두 아이가 묻혀 있는 움팡밭에서 출토되는 흰뽕와 총알피를 통해서도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쇠약 환자로 지독한 결백증과 기피증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환청증세까지 생겼다. 4, 5 년전 콩 두말 누명 사건으로 결백증, 환청, 해녀인 순이 삼촌이 물이 무서워서 물질까지 그만두게 된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명석을 펴고 내다 년 메주콩 두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놓았다. 두집은 서로 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버릴밖에. 당신이 그전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피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온 터였다.³⁸

위의 예문에서 언급했듯이 순이 삼촌은 30년전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파출소, 또는 경찰, 군인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메밀콩 도둑으로 몰릴지언정 순이 삼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며 파출소 기피 현상을 계속해 보이며,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

결정적으로 순이 삼촌은 약 1년전 주인공인 조카 서울집에서 도우미로 같이 생활하는데, 순이 삼촌의 심한 결백증, 기피증 등으로 갈등은 여전하였다. 예를 들어 ‘밥 많이 먹는 제주도 식모 사건’, ‘쌀 떨어진 사건’, 특히 순이 삼촌은 조카인 주인공마저 기피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순이 삼촌을 도와주려 시도해 봤으나 심한 결백증과 기피증으로 결국 포기하게 된다. 순이 삼촌은 30년 전의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정신질환으로 공포와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정상적인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순이 삼촌은 모든 노력을 시도했으나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난지 한 달도 채 안되 자살한다. 30년전에 죽었어야 했던 순이 삼촌은 우여곡절 끝에 30년 유예된 삶은 결국 어린 오누이를 묻었던 곳에서 자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 움팡밭에 불박인 인고의 삼십년, 삼십년이라면 그럭저럭 잊고 지낼 만한 세월이건만 순이 삼촌은 그러지를 못했다. 흰뽕와 총알이 출토되는 그 움팡밭에 밭이 묶여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다.³⁹

주인공은 순이 삼촌의 죽음을 통해 과거 외면했던 자신의 괴로운 기억을 대면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회복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주인공은 순이 삼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과거 사건을 재경험을 애도의 기회를 가지며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며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은 순이 삼촌의 자살을 계기로 현재로 다시 유대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³⁷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앞의 책, 73~83 쪽.

³⁸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58 쪽.

³⁹ 현기영, 「순이삼촌」, 창비, 2018, 94 쪽.

4. 나오며

이상으로 본논문은 식민지 제국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관민 충돌 사건-1947년 대만에서 일어난 2.28 사건과, 1948년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사건에서 트라우마의 문제에 집중한 대만의 郭松棻과 한국의 현기영 두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月印」과 「순이 삼촌」에서 나타난 인물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갈등을 겪으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유사한 문학적 재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의 郭松棻의 ‘月印’ 속에서는 특징적으로 당대 대만 지식인층과 현실의 갈등을 통해 2.28 사건의 트라우마를 담아냈는 반면, 현기영의 ‘순이삼촌’ 속에서는 도피자의 가족에 대한 참혹한 트라우마를 순이삼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작품 속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月印」속에서 억압된 사회체제로 인해 왜곡되는 주체, 文惠의 경우 불안감으로 인한 공포인 과각성, 통제의 상실과 붕괴의 위협으로 인한 ‘단절’, 그리고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현되는 외상인 ‘속박 등 복합적인 증후를 표출하며, 악몽, 환각에 시달리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징후들을 관찰하여 文惠의 트라우마적 근원을 살펴보면 남편 鐵敏의 지식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으로 인한 갈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文惠는 남편과의 둘만의 행복한 가정만을 꿈꾸는데, 이는 타인의 침투로 낯설고 허무한 세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와 단절되며 극단적으로 왜곡된 선택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남편은 총살당하고 괴로운 기억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폭력적인 사회체제로 인해 좌절된 병리적 주체 순이 삼촌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을 살펴보면 주로 침투와 억제, 단절 등 복합적인 증후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이 삼촌은 30년 전에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 생존의 꿈이 좌절되면서 격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 외상 스트레스 증상을 겪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순이 삼촌이 지속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결백증, 기피증, 환청 등을 앓으며 회복의 단계를 거듭 실패하게 되면서 극단의 상황에서 순이 삼촌의 파멸은 자신의 완강한 저항의 의지를 표출하며 불합리한 사회체제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臺灣文學部分〉

- 郭松棻, 《奔跑的母親》, 台北: 麥田, 2002 年。
許俊雅編, 《無語的春天—二二八小說選》, 台北: 玉山社, 2003 年。
行政院二二八事件小組, 《二二八事件研究報告》, 台北: 時報文化, 1994 年。
國史館台灣文獻館, 《二二八事件檔案彙編(十七)》, 台北: 國史館, 2008 年。
張炎憲、陳美蓉等編, 《二二八事件研究論文集》, 台北: 吳三連基金會, 1998 年。
《台韓人權論壇論文集》, 台北: 二二八紀念基金會, 2008 年。
蘇瑤崇: 〈「終戰」到「光復」期間臺灣政治與社會變化〉, 《國史館學術集刊》, 第 13 期。臺北: 國史館, 2007 年。
陳翠蓮, 《重構二二八：戰後美中體制、中國統治模式與臺灣事件》學位論文。
洪英雪, 《文學、歷史、政治與性別—二二八小說研究》, 東海大學中國文學系, 2006 年。
姜星宇, 《國族的記憶與傷痕—台灣二二八事件與韓國四三事件小說比較》, 國立政治大學台灣文學研究系碩士論文, 2016 年。

〈韓國文學部分〉

- 《순이삼촌》, 창작과 비평사, 1994 년 개정판.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4.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열린책들, 2012.

논문 및 학술지

- 강성현,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2.
김대근, 〈제주도 4·3 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년.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2.
김종권,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철학적 재구성〉,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14.
고성만, 〈제주 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박미선, 〈4·3 소설의 서술 시점 연구〉,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9.
양한권, 〈제주도 4·3 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이기세, 〈현기영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1.
음성철,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13.11, 297-305.
정형아, 〈전후 초기 대만 혼란의 원인: 권력주체사이의 갈등〉, 『탐라문화』 47 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4.

電子媒體

- 濟州 4.3 和平財團,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
網址: http://www.jeju43peace.or.kr/bbs/board.php?bo_table=4_3_1_1&wr_id=1&page=1 0